

## 정기주주총회 인사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의장을 맡게 된 대표이사 곽동걸 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당사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 여러분!

당사는 지난 해와 올해 3월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사 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고, 올해 초 기존 디피씨 주식회사의 사업부문이었던 제조부문을 분사하여 지난 3월 10일 매각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기존 제조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 형태의 변화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은 연결손익 기준으로 매출 3,127억원, 당기순이익 581억원을 시현하였는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80%와 1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산총계 또한 연결기준으로 3,420억원이 되어 전년도 2,495억원에 비해 무려 37%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손익의 주요 증가 원인은 기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던 펀드가 우수한 수익율을 시현하여, 당초 정해진 펀드 기준수익율을 초과함에 따라 펀드로부터 성과보수를 배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2021년 성과보수 845억/관리보수 361억, 2020년 성과보수 39억/관리보수 370억)

올해도 작년에 이어 회사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준비/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설정한 5,500억 규모의 글로벌 혁신성장펀드에 이어 금년에는 2조원이 넘는 대규모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통하여, 명실공히 사모펀드 업계의 Top tier 운용사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스틱에서 운용한 펀드의 우수한 운용 실적으로 유수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신규펀드 결성에 호의적인 반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본시장에서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크레딧 투자 사업부문에 신규 진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중 사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인력 영입과 조직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운영중인 기존 해외사무소외에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하여 해외 자금유치 및 투자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주주 여러분!

요즘,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대체에너지, 인공지능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과 NFT 까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투자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환경 하에서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좋은 투자를 선점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펀드 결성을 통한 충분한 투자자금 확보와 함께,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 합니다.

대규모 생산설비와 인적자원 모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과 달리,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경쟁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모투자 운용업의 특성상

우수한 인력 영입과 함께, 펀드 운용인력이 펀드운용 기간 동안 이탈 없이 펀드 운용에 전념하게 할 수 있는 성과보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는 국내외 연기금의 중요한 심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도 우수한 운용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임과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많은 우수한 인력이 스틱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주주여러분,

오늘 정기 주주총회가 스틱과 주주 여러분들의 가치 실현에 중요한 자리임을 이해해 주시고 총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금번 상장을 계기로 주주분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배당 수준은 금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여 갈 계획이며, 회사 주가 수준과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자사주 매입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우수 PE 운용사들의 상장 사례를 연구하여, 영업실적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화된 “스틱” 이 가는 길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를 마친 후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주주님들과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질문을 기대합니다.

주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